

## 이주의 본당 소식

\*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.  
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!

- **미사 안내**  
7월 달부터 화요일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.
- **새 평협회 임원 명단**  
평협회장 : 윤모니카  
부 회 장 : 박영희 마틸다  
성모회장 : 김연자 글라라  
전례부장 :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
재무부장 : 이경실 스텔라
- **본당 울뜨레아**  
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.
- **양로원 미사**  
이번 달 양로원 미사는 없습니다.
- **2019년 성경 공부 - 마르코 복음 여정**  
일시 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
장소 : 강의실      교재비 : \$30
- **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**  
10월 24일(목) - 27일(일)에 남성 꾸르실료 교육이 있습니다.  
많이 신청해 주시고 봉사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- **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**  
주제 :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  
일시 : 8월 14일(수) - 18일(일)  
참가비 : \$480      선착순 : 50명  
자세한 내용은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자매님께 문의바랍니다.
- **성가책 판매**  
소 : \$25, 대 : \$30
- **성모님 꽃 봉헌**  
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**2019년 성지 순례**  
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 
장소 : 터키, 그리스 13일  
날짜 : 9월 29일(일) - 10월 11일(금)  
비용 : 3,195불      문의 : 윤모니카 회장님(254-289-1682)

## 모두함께! 구역 소식

\*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!

- **구역 모임**  
글로리아 구역 :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.(권명자 울리안나 자매님, 권수희 사비나 자매님 주관)

##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

\*환영, 환송,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!

## 알립니다!

- \*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**평협회** 구역입니다.
- \*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**글로리아** 구역입니다.  
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**마틸다** 구역입니다.

# St.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

주임신부: 김도운 프란치스코  
평협회장: 윤모니카



2001 Springdale Rd. Cherry Hill, NJ 08003 (ST. MARY내 위치)

856-912-1355

chkcc.org

### 미사안내

주일 : 오후 5시  
평일(목요일) : 낮 12시

### 성사안내

고백 성사 : 미사 30분 전  
혼인 성사 : 3개월 전 신청  
병사 성사 : 위급할 시 언제나  
유아 세례 : 1개월 전 신청

### \*단체모임 안내

여성 레지오(평화의 모후) :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
울뜨레아 :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  
예비자 교리 :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
평협회 : 수시 모임, 수시 공지

# 오늘의 미사 전례

\*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 
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!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입당성가   | 329번 미사 시작  |
| 제1독서   | 창세기 18, 1-10  |
| 화답송    | ◎ 주님,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독서   | 콜로새서 1, 24-28   |
| 복음 환호송 | ◎ 알렐루야.<br>○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!◎ |
| 복음     | † 루카 10, 38-42  |
| 봉헌성가   | 507번 나의 주 예수여   |
| 성체성가   |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 |
| 퇴장성가   | 59번 주께서 나의 피난처  |



# 오늘의 묵상

우리는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에 익숙하기에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‘왜 마르타가 꾸중을 들을까?’ 생각합니다.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놀기만 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등장인물 중 누가 옳은지를 보여 줍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르타가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시며,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.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, 마르타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.

성경에서 주님을 맞아들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타입니다. 그런데 마르타는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지 않고, 온갖 시종드는 일에 ‘분주’합니다.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르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. 이에 반하여 마리아는 “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” 있습니다.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

제1독서의 아브라함도 마르타처럼 주님을 맞아들인 뒤 주님과 그분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마르타와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 곁에 머물며 시중을 듭니다.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손히 답합니다. 제1독서에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사 람이었습니다.

성경의 관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관점에서 ‘말씀만 듣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것일까?’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적 의문으로 복음의 초점을 흐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.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미 마르타와 베짖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,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(염철호 요한 신부)

# 우리들의 기도

## 평화의 기도

-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-

오 주님,  
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.
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,  
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,  
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.

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,  
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,  
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.

오 거룩하신 주님,  
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,  
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,  
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.

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,  
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,  
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아멘.

##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

| 주 일   | 연중 제16주일<br>7월 21일 | 연중 제17주일<br>7월 28일 | 연중 제17주일<br>8월 4일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독서  | 권명자 율리안나           | 김정숙 이사벨라           | 신선희 카타리나          |
| 제2독서  | 황선동 스테파노           | 김희동 프란치스코          | 김정숙 이사벨라          |
| 봉 헌 자 | 문혜숙, 김성욱           | 백윤기, 허인선           | 권수희, 이순덕          |

## 우리들의 주일정성

< 7월 14일(일) >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봉헌금          | \$422.0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교무금          | \$160.00        | 권수희(6,7) 윤모니카(6,7) |
| 예물봉헌         | \$35.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Total</b> | <b>\$617.00</b> |                    |